

■ 법률 칼럼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1. 개요**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으로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체류 신분은 관계없이 초청장(Immigration Petition)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초청장이 승인이고 승인이 National Visa Center로 송부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첫째 단계**  
 우선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 청원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는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민국은 자녀의 시민권자 신분을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를 한국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신분을 한국 여권/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이 이민청원서/초청장을 승인을 해 줍니다.

**3. 둘째 단계**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은 이 승인서를 미 국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30일 전후하여(요즘은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는 케이스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케이스 번호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여카운트를 열게 됩니다. 이 여카운트로 앞으로 진행할 케이스의 이민 비자 소속 비용을 National Visa Center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운트로 DS260이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 이 여카운트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한 신상 서류들 그리고 초청 자녀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

들이 모두 수합되면 케이스가 리뷰를 위해서 완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National Visa Center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과로 케이스를 송부하고, 송부와 함께 케이스가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서울 미 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4. 셋째 단계**  
 이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자녀의 재정 보증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간 밀봉된 건강검진 서류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범죄기록 여부인데 이는 경찰청 회보서 그리고 수사기록 회보 등을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혹시라도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기소/기소 유예/벌금형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영사가 부모님의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한 택배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붙든 여권과 첫 입국 시에 이민관에 보여줘야 하는 서류들이 든 소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배달될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6. 나가는 말**  
 이민 수속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민국과 국무부의 실수가 빈발하고 있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 시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리허설 등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터뷰장에 시민권자 자녀 참석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전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 홀리데이(Holiday)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홀리데이는 공휴일로 배웠다. 지금도 사전에는 일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날로 정의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홀리데이는 노는 날이라고 모두 알고 그렇게 한다. 어제 아침 ABC TV의 아침 프로그램 굿 모닝 아메리카 담당자들이 설문을 근거한 내용을 발표하며 대답하는 것을 출근을 준비하며 잠시 시청하였다. 지금 미국사람들은 슈퍼볼 경기 다음날과 Summer Time 시행일을 홀리데일로 원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나로서는 이해 못할 일들이지만 나와 함께 생활하는 미국사람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결국 홀리데이는 노는 날이기에 실컷 놀고 피곤한 그 다음날을 홀리데일로 하자는 사고이다.

그러나 일년 365일 중에 미국 국가가 홀리데일로 정한 날들은 신년 1월 1일, Memorial Day(현충일), 독립기념일, Labor Day(노동절), 감사절과 성탄절이다. 모두 깊은 의미가 있는 날들이다. 새해 첫날은 지난 사천 년 동안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즐겨 맞이한 축제의 날이다.

Memorial Day는 남북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이나 혹은 국가를 위해 순국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독립기념일은 영국에서 신천지로 건너 온 사람들이 약 250년 전 우리는 영국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주하겠다고 서명한 날이다. Labor Day는 130여 년 전 국가의 부강은 노동자들에 기인한다며 한 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감사절은 한국의 추석과 같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룩한 날이다. 1700년 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후 서구의 문명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고 지금 이 미국은 기독교를 기초하여 건국함은 우리 모두가 안다.

미국이 1774년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영향에서 벗

어나 자주독립국가로 될 때까지 수많은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다. 감사절은 단순한 한 해의 풍작 결실을 넘어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 남았다는 감사가 포함 되어 있다. 노동절은 1880년도 미국이 대륙간 철도를 놓고 국가 기간산업을 기초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죽기도 하며 피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공로를 거룩하다고 인정한 날이다.

이처럼 홀리데이는 순국의 피 흘림과 노동의 신성함이 기초한 거룩한 날들이다. Holiday는 Holy(거룩함)와 Day(날)의 합성어이다. y로 끝나는 말이 다음 낱말과 연결 될 때에는 y가 i로 변한다고 중학 일학년 초급 영어에서 배웠다.

이 거룩한 날들의 기본 정신을 되새기며 기억하자고 일상의 업무에서 쉬게 하는 국가적의도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Holiday는 노는 날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사람은 자라면서 배우고 사회의 조류에 동승하고 생활한다. 근본 취지는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살아온 현재와 미래의 미국 국민들은 놀기 위해서 Day Off를 해야 한다고 Super Bowl 경기 날을 National Holiday로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지면상의 추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이 Memorial Day라 집 차고 문에 성조기를 게양했다. 그리고 군복무하는 모든 군인과 생명을 바친 모든 미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표한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호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632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